



보도자료



2020년 12월 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 2일(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12. 3(목)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과장	이귀현 과장(044-203-4020) 서정호 과장(044-200-5710) 심재윤 과장(042-481-4391))	담당자	안진호 사무관(044-203-4025) 배준오 사무관(044-200-5725) 이상훈 사무관(042-481-4355)

◇ 수출입물류 애로해소 긴급 대책 추진

- ① 범부처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가동
- ② 연말까지 미주노선 선박 3척(12,600TEU) 추가투입
- ③ 중소기업 운임비 경감(70억원) 지원
- ④ 내년 1월말까지 중소화주 전용물량 1,400TEU 추가 배정

◇ 선복량 확대, 컨테이너 박스 조달 등 중장기 대책도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해상운임 급등 등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12.3(목)부터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본격 가동 함.

○ 최근 미주노선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미서부항 FEU당 운임 : ('20.1)1,572\$ → (11.8) 3,871\$ → (11.20)3,913\$ → (11.27) 3,880\$

** 수출입기업 물류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20.11월 무역협회) : 물류비 증가 (85.4%), 선복확보 어려움(79.5%), 해상운송 지연(74.1%), 계약변경 등(6.5%)

- 이에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선주협회, HMM, 코트라, 중진공 등 업계 및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한국무역센터 1층에 설치하여 12월 3일 목요일부터 업무에 착수함
- 종합대응센터는 ①선박, 공(空) 컨테이너 등 수출입물류 동향 파악, ②수출입물류 관련 정부 대책 이행 지원, ③중소화주 선박 물량 모집 및 물류애로 접수, 해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우선 수출입물류 애로접수센터(대표번호 02-6000-5218)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물류관련 불공정 계약 신고나 애로를 접수받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HMM 등 국적선사, 선주협회 등과 실시간 협력 채널을 통해 추가 선박 공급, 空 컨테이너 확보 등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 추가적인 지원대책 》

-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가동 외에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 ① (선박 추가공급) 11.30일 투입한 추가 선박(HMM 3,880TEU급) 외에도 12월까지 3척의 선박을 미주노선에 추가로 투입(12,600TEU)하여 미주 노선 공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
 - 특히, 국적선사는 12월 추가선박 3척 투입 등으로 11월보다 국내 선박 공급량을 40% 증가한 총 36,000TEU 규모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적선사도 12월에 한국을 경유하는 임시 선박 6척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12월 미주항 해상운송 물동량은 11월보다 감소(△8%)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추가 선박 투입으로 그간의 대기 물량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② (중소화주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물류기업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등을 금년 12월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임(70억원 규모)

*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고 예정

○ 또한,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지원을 위해 금년 12월말까지 예정된 중소기업 전용물량 배정(350TEU ×6주)을 내년도 1월말까지 연장하여 1,400TEU(350TEU×4주) 규모 물량을 추가 배정하기로 함.

* 지난 11월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r.gobizkorea.com)을 통해 정보제공 및 물량배정 지원

○ 이외에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 등 물류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를 제공('21년, 600개사)하기로 함

③ (선사 인센티브 제공)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최대15%) 연장*, 추가선박에 대한 입항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임

* 당초 : '20.7~12 → 연장 : '21.6, 6개월 연장

○ 이는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의 한국에 선박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금번 수출입물류 애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수부는 국적선사 선복량과 컨테이너 박스 확대 등 중장기적 지원 대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임

① (선복 확충) HMM 1.6만TEU급 8척 신규 투입('21.上, 항로 미정) 등을 통해 주요 수출입항로의 운항노선을 확대하고, '25년까지 국적선사의 원양선복량을 120만TEU로 확대할 계획임(현재 77만TEU)

○ 또한 동남아항로를 운항중인 국적선사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선대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K-얼라이언스' 구축도 추진 중임

② (컨테이너 조달) 선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 박스 리스 사업*을 확대하고, 국적 선사 간 컨테이너 박스 공동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임

* 해양진흥공사의 우수한 신용을 바탕으로 컨박스를 대량 발주하고, 국적선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임대

□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는 “최근 9월은 ‘총 수출액 플러스’, 10월은 ‘일평균 수출액 플러스’에 이어, 11월은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현 시점에 물류 애로 해소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 “최근의 운임상승, 선복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연말까지 미주항로 선박 추가투입과 증소 수출기업 지원 확대 등 단기적 대책과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 및 안정적인 컨테이너 박스 조달 등 중장기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지원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함.

□ 종합대응센터를 통한 안내 및 지원은 12.3(목)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대표번호(02-6000-5218)를 통해 이용 가능.

붙임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안진호 사무관(☎044-203-40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센터 개요

- 배경 : 수출입물류 현황 실시간 파악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부처·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 명칭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구성 : (정부부처)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유관기관) 무역협회, 해운협회, Kotra, 중진공, HMM
- 운영기간 : 2020. 12. 1. ~ 2021. 2. 28 (3개월) (월~금, 09:00~18:00)
- 운영분야
 - 수출입 운송·운임 동향(수요/공급) 분석 및 대책(선복확보 등) 마련
 - 수출입 물류 애로접수·조치·피드백
 - 해운거래 불공정 사례 신고

2. 문의처

- 전화: 02-6000-5751~5, 5225, 5207, 5218
- 위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1층 종합대응센터

